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위한 정책방향



김 상 배
환경부 환경경제과장
☎ 02-2110-6685, sbkim@me.go.k

〈필자약력〉

-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 미 콜로라도대학 행정학 석사
- 환경부 홍보기획팀장, 교통환경 기획과장
- 현 환경부 환경경제 과장

I. 머리말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SD)이라는 개념이 태동하게 된 시발점은 1986년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 위원회(World Commissions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WCED) 회의이다. 국제 경제의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업계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의

(WSSD)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들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계의 선진기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요구에 대응하고 존경받는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기업의 가치를 높이며,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이슈들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대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II.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의 국·내외 동향

최근 기업경영에서의 화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완수이며, 이는 세부적으로 사회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인 발전을 위한 기업의 기여를 말한다.

특히 이중에서 환경적 책임의 완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해온 기업의 가치가 유조선 사고 등 단 한번의 환경오염사고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는 국내·외의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여건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과거 한 나라내에서의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억제주주로 이루어지던 기업의 환경관리는, 세계화에 따라 국

경을 넘나드는 제품과 환경오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제품에 환경성을 결부시키는 통합제품정책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업은 사업장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생산한 제품의 친환경성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환경경쟁력을 가지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선진기업들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기업 경영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환경관리 차원을 벗어나 기업의 전 가치사슬(전략, 조직, 재무, 생산, 제품, 마케팅, 구매, 커뮤니케이션)에 통합하여, 기업의 핵심가치와 전략이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지속가능전략의 개발단계에서 한 차원 더 발전시켜 전략실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의 진척상황을 적극적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GRI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06년도 4월 13일 기준으로 전세계 831개 기업이 GRI 지속가능성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을 포함하여 12개사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선진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필립스사의 경우 지속가능경영 사무국과 지속가능경영 위원회를 통해서 지속가능경영 전략 추진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GRI, WBCSD, UNEP, UN Global Compact 등과 같은 지속가능경영 관련 단체 및 조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 부문에서 기업의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III.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1.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환경관리에 있어 지도·단속 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기

업이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정근거를 두고 있으며 '06년 3월말 기준으로 171개 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체의 환경관리 일반현황, 오염물질 관리현황 및 환경개선계획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3단계의 엄정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매년 지난해의 이행실적 및 당해년도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도·점검의 면제 및 배출시설(수질·대기)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에 있어서 우대를 받게 된다.

2. 지속가능경영 글로벌화 전략 마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04년에 국내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로드맵, 추진방법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글로벌화 로드맵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또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글로벌화 포럼”을 개최하여 지속가능경영 마인드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05년에는 기업체가 스스로 자신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의 환경측면 자가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3. 선진 환경경영기법 확산·보급

갈수록 강화되어가는 선진국의 제품 환경성 규제에 대응하고, 기업운영의 전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하여 환경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까지 이룰 수 있도록 환경보고서의 발간 등 4대 선진 환경경영기법의 확산·보급 사업을 '01년부터 추진하여 왔다.

특집 Part 1.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위한 정책방향

〈선진 환경경영기법 보급사업 현황 및 참여업체 수〉

구 분	계	1차 ('01.9~'02.4)	2차 ('02.7~'03.4)	3차 ('03.8~'04.4)	4차 ('04.8~'05.4)	5차 ('05.8~'06.4)
계	170	15	31	34	50	40
환경보고서	51	15	10	13	13	-
환경성과평가	53	-	15	10	13	15
환경회계	42	-	6	6	15	15
환경리스크평가	24	-	-	5	9	10

① 환경보고서

환경보고서는 기업의 환경전략, 현황, 성과, 계획 등을 수록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하는 수단이다.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환경정보에 대한 요구가 금융기관, 소비자, NGO 등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어 국내외 기업들의 환경보고서 또는 지속가능보고서의 발간이 확산되고 있다.

② 환경성과평가

환경성과평가(EPE :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는 기업의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의사결정 도구로서 환경회계와 함께 부각되고 있으며 지표선정, 자료 수집·분석, 보고 및 의사소통을 통하여 조직의 환경성과에 대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③ 환경회계

환경회계(Environmental Accounting)란 기업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비용 및 효익을 평가함으로써 기업의 원가 절감 및 이익제고,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도구이다. 기업의 환경관련 지출 및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업이 이러한 환경투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합리적이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회계는 기업체의 환경경영 수행에 있어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 평가

환경리스크평가란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 및 투자평가 등 금융활동에서 당해 기업의 환경리스크를 고려한 평가를 수행하여 금융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이러한 활동은 기업체의 환경경영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4. 에코디자인 보급·확산과 친환경공급망 구축

제품의 생산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환경영향은 제품의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원료물질 취득 및 제품의 사용, 폐기, 운송과 같은 전과정 단계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환경오염의 근원적인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제품설계의 활용을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비용절감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01년부터 에코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에코디자인의 효과적인 보급·확산을 위해서 국내 기업이 에코디자인에 관한 사전지식 정도가 다를 것을 고려하여 에코디자인 개념에 대한 집체교육과 에코디자인 소프트웨어 현장 적용 교육의 2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해 왔다.

친환경 원·부자재 공급망(ESCM : Eco Supply Chain Management)은 기업이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시 구성성분,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와 그 정도 등 환경성을 평가하여 구매할 수 있는 정보망이다. 환경부에서는 '04년에 전기·전

자 분야 등 Eco-SCM 구축을 위한 일반지침을, '05년에는 건축자재 친환경 물품공급망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5.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촉진

기업체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친환경상품의 소비활성화와 환경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시장의 녹색화를 위하여 환경마크제도 및 환경성적 표지제도를 운영중이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한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체계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금액은 2004년 2,600억원 규모에서 2005년 6000억원 규모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친환경상품 수요확대가 기업의 친환경상품 개발과 생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상품의 중요한 소비와 생산 주체인 산업계의 자발적인 녹색구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05년 9월 환경부와 3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산업계의 녹색구매 자발적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녹색구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업의 구매관련 규정 검토 및 개정을 통한 녹색구매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VI. 앞으로의 정책방향

올해로 도입 12년째가 되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그 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해왔으나 해당 기업들이 국제적인 수준의 지속가능경영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요건과 지정취소요건을 계속적으로 강화하여 이들 기업의 환경경영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화기업제도를 국제적 수준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속가능경영 글로벌화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의 해외 최신 동향조사 및 환경·경제·사회분야 지속가능경영기법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산업계에 지속가능경영을 확산하기 위하여 오는 6월에 '06년 국가환경경영대상에서 선진적인 지속가능경영기법을 도입한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친화기업협의회와 지속가능경영 보급을 위하여 해외 선진국가의 동향을 파악하고 매년 개최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를 확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추진된 선진 환경경영기법 연구사업의 성과를 '06년도 환경경영 가이드라인 제작·보급을 통해 산업계로 확산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환경리스크 평가에 대한 연구사업은 금융기관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환경리스크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4대 선진 환경경영기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전 산업계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자발적 협약의 활성화를 통해 산업계의 녹색구매를 대폭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친환경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TV·인터넷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친환경상품전시회('06.11, 코엑스) 등 소비자가 친환경상품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특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 개정에 따라 백화점·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재활용매장을 친환경상품 판매매장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친환경상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 및 기업의 국제 경쟁력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서 기업은 지속가능경영전략의 수립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는 기업과 함께 국내의 환경경영수준을 국제적 수준의 지속가능경영으로 글로벌화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기반 구축에 주력해 나갈 것이다.